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참석-

전북자치도의회대표단 중국 방문 결과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참석 -

전북자치도의회대표단 중국 방문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기 간 : 2025. 10. 14.(화) ~ 10. 17.(금) / 3박 4일
- 방문지역 : 중국 장쑤성 일원
 - * 참가기관(의원) : 전북도의회(4), 서울시의회(6), 경기도의회(12), 충남도의회(8)
 홋카이도의회(5), 지바현의회(3)
- 출장인원 : 10명(의원 4, 직원 6)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의장	문승우	남	기조연설 및 장쑤성 현장 벤치마킹
	부의장	이명연	남	토론발표 및 장쑤성 현장 벤치마킹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남	원탁회의 참석 및 장쑤성 현장 벤치마킹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남	토론발표 및 장쑤성 현장 벤치마킹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사무처 직원	의회사무처장	곽효승	남	공무국외출장 총괄 지원
	총무팀장	김영수	남	포럼 요약 정리
	주무관	최준창	남	예산 및 회계
	주무관	인희전	남	의전 지원
	주무관	문요한	남	사진 촬영
	주무관	김해빛찬	남	발표 지원

- 주요내용
 - 한중일 협력포럼을 참석을 통한 글로벌 교류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 장쑤성 현지 시찰을 통해 교류지역의 심도 있는 이해와 교류협력
방안 모색

II

전체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0. 14(화)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OZ 337, 인천 ⇨ 옌청) 09:10 → 10:00(시차 :1시간) ○ 옌청시 현장 시찰 : 위에다그룹, SK신에너지, 중한문화거실 ○ 장쑤성 인대 판진룽 부주임 주최 만찬 	의회출발 : 03:20
10. 15(수)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개막식, 기조연설, 토론 등) ○ 장쑤성 인대 신창싱 주임 주최 회견 및 만찬 진행 	본행사 (진링수이청 호텔)
10. 16(목)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쑤성 현장 시찰 : 두루미보호구역, 황해산림공원, 사슴보호구역, 전과정민주센터 등 	현장방문
10. 17(금)	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OZ 350, 난징 ⇨ 인천) 14:50 → 18:10(시차 :1시간) 	의회도착 : 22:00

① 연청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중한문화거실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10. 14(화) 14:00 ~ 15:30
- 장 소 : 연청 한중 산업협력단지 기업 방문 및 중한문화거실 (위에다 그룹, sk신에너지, 중한문화거실)
- 내 용 : 연청 한중 산업협력단지 시찰 등



위에다 그룹



sk신에너지



중한문화거실



□ 방문기관

<위에다>

- 위에다 그룹은 중국 장쑤성 옌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향토 기업이자 중국 500강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옌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특히 한국 기업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통해 성장
- 동평위에다 기아(東風悅達起亞, DYK)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옌청을 중국 내 주요 자동차 생산 기지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

<sk신에너지>

- SK신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문 자회사인 SK온(SK On)이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건설한 핵심 생산 기지 중 하나로 한중 산업 협력의 중요한 사례이며, 옌청이 위에다 기아에 이은 신에너지 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중한문화거실>

- 옌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 단순히 사무 공간이 아닌, 옌청시가 경제 협력을 넘어 한국인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시사점

- 산업 협력의 심화와 고도화 필요성
 - 옌청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향후 전기차·배터리 등 신에너지 분야로 협력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이는 전북이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도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구축

- 위에다 그룹과 SK신에너지의 협력 사례는 대기업 중심의 합작모델을 넘어, 지역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임. 전북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 인력양성,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 교류의 중요성 부각

- 중한문화거실은 경제 협력을 넘어 문화적·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는 양국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경제뿐 아니라 상호 신뢰와 문화 이해에 있음을 시사함. 전북도 한중 교류사업 추진 시 문화·인문 교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교류 거점으로서의 엔청 모델 참고

- 엔청시는 산업협력단지, 정주환경 개선, 문화교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이는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동북아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외교 및 산업정책 수립 시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②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 행사개요

- 일 시 : 10. 15.(수) 09:00 ~ 18:00
- 장 소 : 옌청시 진링수이청 호텔
- 참석인원 : 약 120명 내외(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등)
- 내 용
 - 3국 지방의회 외교역량 강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포럼 개최
 - 세션별 발표 및 패널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담화 및 의견교환 진행
- 기조연설 발표내용

기조연설 : 인민대표대회와 의회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호교류 및 협력 강화	
발표자	발표내용
상무위원회 부주임 저우광즈	장쑤성은 중국의 핵심 경제 지역으로서 일본·한국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입법·감독·민주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있음 이번 회의는 중·일·한 지방의회 간 협력, 기술혁신·문화교류·청년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우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길 바램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한중일 지방의회가 각국의 제도적 강점을 살려 협력과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바램
충청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한중일 3국이 지방 차원에서 경제·에너지·인적·물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공동 번영을 이루자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
치바현 의회 의원 기와무라 히로야키	강소성과 치바현을 비롯한 각국 지방의회가 경제·환경·인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 특히 정기적 대화, 테마별 워크숍, 시민 참여형 교류 행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우호 협력을 강화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회장 문병근	지방의회의 역할을 통해 한·중·일 3국 간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교류 플랫폼 강화, 정책입법 경험 공유, 상시 연락창구 구축의 세 가지 방향을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한중일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기술·환경·문화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쟁을 넘어 상생과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이번 원탁회의가 세 나라 지방의회의 지속 가능한 협력과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
홋카이도 의회 의원 나카노와타리 시호	한중일 3국이 지방의회 간 협력과 여성 의원 교류를 강화해 공통 과제인 인구 감소·양성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세 나라 간 지속 가능한 우호 관계 구축을 통해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안

○ 의제토론 발표내용

제1의제 토론 : 경제 무역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과 윈윈전략을 실현	
토론자	토론내용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중혁	한중일 지방의회 간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안 중 중소기업 중심 협력, 녹색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확대, 해상 물류·관광 협력,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지방이 중심이 되는 공동 번영의 미래를 강조
치바현 의회 의원 고노 토시노리	일본중국한국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와 생활 속에서 긴밀히 연결된 불분의 관계라고 강조 또한 자신의 플랜트 엔지니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교류는 이익보다 신뢰 구축이 핵심이며, 상호 이해와 진심 어린 협력이 지속 가능한 우호 관계의 기반임을 강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석	한중일 지방의회가 경제·인재·혁신의 세 축을 중심으로 실행력 있는 협력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과 지역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명연	한중일 3국이 산업에너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동아시아의 상생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 특히 중소기업·청년 교류와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부회장 박상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한중일 각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연결해 첨단기술 연구, 농수산 교역, 관광인적 교류 확대의 세 가지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호혜상생(互惠相生)의 실질적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자고 강조
홋카이도 의회 우치다 카타유키	한중일 3국이 지역 산업, 관광,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상호 호혜와 공동 번영을 이루자고 강조. 특히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인적 교류를 확대 필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장쑤 위이다 그룹 동사장 장보원	Yueda Group은 기아와의 협력을 통해 연청을 대표하는 한중 산업협력 모델을 구축했으며, 자동차 수출과 이익을 회복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
제2의제 토론 : 인문교류 촉진하여 민의 기반 굳히기	
토론자	토론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정규	한중일 3국이 무형문화유산, 청소년 교류, 문화재생산업 등을 통해 인문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 또한 실현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추진해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
홋카이도 의회 의원 히가키 히사코	한중일 3국이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고,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민의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청소년 교류와 문화 행사를 통해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우정과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함
치바현 의회 이토 치카코	치바현의회 이토 치카코 의원은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상호이해와 민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족과 지역의 교류 사례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교류의 중요성과 평화 번영을 위한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세 나라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람 중심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 또한 문화·교육·주민 참여형 교류를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협력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김동욱	시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중일 청년 세대가 새로운 문화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 나라가 AI 윤리와 디지털 협력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문화외교 모델(East Asia Cultural Innovation Pact 2030)을 함께 설계하자는 제안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공링준	양저우시는 한중일 문화 교류의 역사적 중심지로서, 지방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일본-한국 지방의회와 경제문화청년 교류를 지속 확대하며 상생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추진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 한·중·일 지방의회가 인적·문화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 청년 리더십 캠프·지역 맞춤형 축제 교류·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방안을 제안

<현장사진>



□ 우리도의회 원탁회의 발언 주요 내용

○ (문승우 의장)

-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정치가 필요
- “경제는 실질적 성과로, 문화는 지속 가능한 교류로, 생태는 상호 책임”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강조

○ (이명연 부의장)

-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방 차원의 산업 연대에서 비롯된다고 강조
-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장쑤성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일본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벨트를 구축 검토 필요
-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가가 함께하는 실무형 경제협력으로 발전 강조

○ (박정규 부의장)

- 문화예술은 마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3국이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청소년 문화캠프를 정례화해 신뢰를 쌓은 것 강조
- 전북 임실 필봉농악, 장쭈성 전통 타악, 일본 와다이코를 연계한 ‘삼국 농악 페스티벌’ 을 시범 추진 검토.

③ 장쭈성 현장 시찰

□ 행사개요

- 일 시 : 10. 16(목) 11:00 ~ 17:00
- 장 소 : 장쭈성 일대(두루미보호구역, 황해산림공원, 사슴보호구역, 전과정민주센터)
- 참석인원 : 100여명(한중일 협력포럼 참석자 및 장쭈성 관계자 등)

□ 방문지

<두루미보호구역>



○ 현황 요약

- 세계 최대의 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전 세계 야생 두루미의 60% 이상이 이곳에서 겨울을 보냄
- 두루미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관광지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생태 보전 중임

○ 시사점

- 두루미보호구역은 단순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넘어, 생태 보전과 관광 산업의 공존을 실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이는 생태계 보전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병행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전북의 ‘새만금 철새 도래지’ 등과 같은 생태자원을 활용할 때, 단순 보존이 아닌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을 병행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황해산림공원>



○ 현황 요약

-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인공 생태 평원 산림으로 1960년대부터 갯벌을 개간하여 조성된 대규모 인공림
- 숲 피복률이 90%가 넘는 거대한 메타세쿼이아(낙우송) 숲이 유명함

○ 시사점

- 1960년대부터 갯벌을 산림으로 전환한 황해산림공원은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생태 복원 정책이 실질적인 녹색전환 성과로 이어진 사례임.
- 전북 역시 탄소중립과 산림자원 확충 정책 추진 시,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 복원 계획과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함.

<사슴보호구역>



○ 현황 요약

- 이 동물은 한때 중국 본토에서 멸종했었으나, 1986년 영국 등 해외에서 39마리를 재도입하여 성공적으로 번식시킴
- 전 세계 말사슴 개체군의 최대 서식지이자 유전자 저장소이며, 개체수가 8,500마리를 넘어 멸종위기종 복원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

○ 시사점

- 해외로부터 소수 개체를 도입해 대규모 서식지로 복원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 과학적 관리, 지역사회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됨.
- 멸종위기 생물종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진 중인 전북의 관련 기관은 민관 협력 및 국제 연계 연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엔칭시 전과정민주센터>



○ 방문결과

- 전과정 인민 민주 실천센터는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전과정 인민 민주' 이념을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는 현장 거점
- 모든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진행되며, 당과 정부의 정책을 인민의 이익에 맞게 구현하는 풀뿌리 정치 참여 플랫폼으로서 기능

○ 시사점

- 전과정민주센터는 당의 지도 아래 행정과 주민 의견을 통합하는 정치 실험장으로, 중국식 '인민 민주' 의 현장 적용 사례를 보여줌.
- 이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 자치분권 정책과 비교·분석할 가치가 있으며,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의 공공참여 확대 및 속의 민주주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